

영암 월산사는 조선전기 왕실사찰로 중창

9월 2일 대한문화재연구원 3차 발굴조사 결과 명문 다양 확인

전남 영암 월산사가 조선시대 왕실원찰(王室願刹) 중 하나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영암군은 9월 2일 대한문화재연구원(대표 이영철)을 통해 월산사지(前 월암사지)에서 조선 초기 왕실 가람의 면모를 알 수 있는 명문과와 관사명 분청사기 등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통일신라 말 도선 국사의 출가지로 알려져 있는 월산사지는 2004년 이후 3차례 걸쳐 발굴조사가 진행됐으며, 이번 발굴조사를 통해 조선 전기 왕실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중창되었음이 밝혀졌다.

특히 3차에 걸친 발굴조사에서는 '月山君·粹賓宮(1470년 이전)', '月山大君·仁粹王妃(1471년 이후)' 등 왕실 후원자가 새겨진 명문과, '丁酉(1477)·成化十七年(1481)·乙卯(1495)' 등 연호와 간지가 새겨진 명문과, 이외 왕실 소용을 목적으로 제작된 '內齋' 명 등 관사명 분청사기 등이 출토돼 주목된다.

명문내용을 토대로 하였을 때 영암 월산

사지는 성종연간 왕실의 후원으로 중창된 왕실원찰 중 하나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조선 전기 왕실을 기반으로 한 사찰중창의 배경, 사찰 조영의 계획과 조성과정 등 관련 분야의 연구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학술적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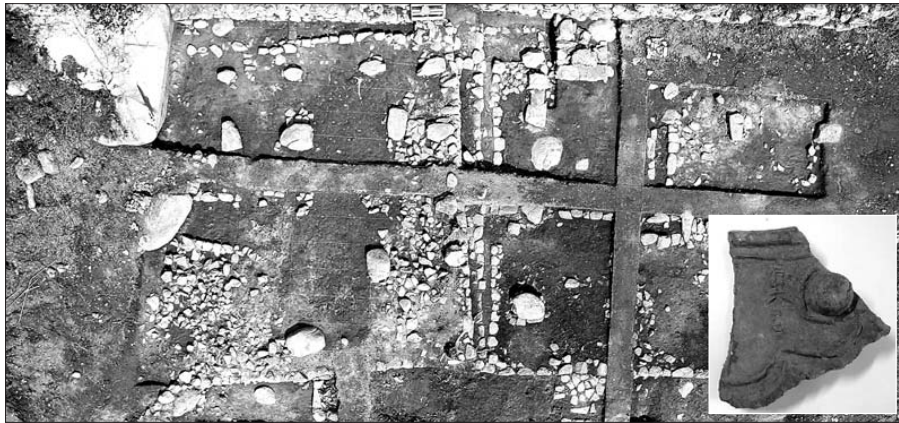
신라말 도선 국사 출가지로 알려져

조선 성종 때 월산대군과 밀접한 관련

영암 도갑사, 강진 무위사 등 연관

아울러 사찰의 위상과 규모를 알 수 있는 건물지가 비교적 양호하게 남아 있으며, 중창된 건물지 하층으로 이전 시대의 건물지와 유물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보다 정밀한 조사가 요구된다.

이번 발굴조사는 영암군 군서면 월곡리 일대 500㎡를 대상으로 지난 2004년(1



영암 월산사지 발굴 세부사진과 월산대군(月山大君) 명문이 적힌 출토 기와(박스 안).

차), 2009년(2차) 실시한 시굴조사에서 확인된 건물지의 축조방법, 중축 양상 등을 확인하고, 잔존상태가 양호한 곳에 트랜치를 설치하여 하부문화층의 유무를 확인하는데 중점을 두고 2013년 8월 12일부터 9월 4일까지 실시했다.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바로는 월산사의 중창은 월산대군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월산대군(1454~1488)은 조선조 9대 성종의 친형으로, 세종의 사

랑을 받고 자랐으나 왕위에 오르지 못하고 책과 자연을 가까이 하여 풍류를 즐겼다고 한다.

한편 조선시대에 들어서는 영암 도갑사, 강진 무위사 등 몇몇 주요사찰들이 왕실의 지원에 의해 중창되었다. 월산사지가 위치한 월출산 주변으로 천황사, 용암사지, 월남사지, 무위사, 도갑사 등 많은 불교유적이 존재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자비신행회 독거어르신 위한 합동제사



9월 5일 합동제사를 지내는 광주 북암사 주지 도성 스님과 독거 어르신들

“몸도 아프고 형편이 힘들어 부모님께 제사를 못해 항상 죄스러웠는데, 이렇게 제사를 지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광주 동구에 거주하는 조급례(73) 할머니는 혼자 사는 독거노인이다. 매일 동사 무소에서 주는 도시락 1개와 자비신행회에서 제공하는 점심을 먹는 것으로 하루 식사를 대신한다. 할머니는 벌써 심장수술을 비롯해 큰 수술을 3번이나 하여, 주변의 도움없이 삶을 영위할 수 없는 차상위계층이다. 이런 어르신들을 위한 합동제사가 마련돼 눈길을 끈다.

(사)자비신행회 한빛노인복지센터(센터장 김삼옥)는 지난 9월 5일 법당에서 지역에서 홀로사는 어르신 15세대를 위한 '어르신합동제사'를 봉행했다.

이번 합동제사는 '어르신소원기금' 운영을 통해 마련된 기금으로 어려운 형편으로 인해 제사를 모시지 못하는 조급례 할머니와 같은 독거노인들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제사는 스포츠로도 전라지사의 후 하에 광주 북암사 주지 도성 스님이 집전을 노력봉사 했으며 증심사 봉사단 등이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이날 조급례 할머니는 부모님과 먼저 보낸 동생을 위패로 모시고 7년 만에 제사를 올렸다. 할머니 외에도 15세대의 어르신과 가족들도 정성스레 준비한 제사상에 큰 절을 올리며, 그동안 못다한 효도의 한을 풀었다.

김영섭 자비신행회 사무처장은 “어르신 합동제사 프로그램을 지역의 힘든 어르신들에게 더욱 확대할 방침”이라며 새로운 포교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비신행회는 매일 지역 차상위계층의 독거어르신들에게 무료로 점심을 제공하는 심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어르신 소원기금, 어르신나들이기금, 어르신생신잔치기금 등을 운영하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광주 꽃피움절 지역 아동 다도 교육나서



문화예절공간이 '다비움'에서 다도시범을 보이고 있는 꽃피움절 신도들

‘밥상머리교육’으로 일컬어지는 아이들의 인성교육을 담당할 공간이 광주에 생겼다.

광주 북구 꽃피움절(주지 목언)과 협동조합 피움(대표 나현옥)은 지난 8월 30일 광주문화초등학교 인근에 아이들의 문화예절공간인 '다(茶)비움'을 개관하고 방과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예절, 다도교육을 실시한다.

다(茶)비움은 꽃피움절과 신도, 그리고 지역의 사회단체가 연합하여 지난 5월 창립한 협동조합 피움의 첫 교육공간이다.

이날 개관한 다(茶)비움은 60여 명의 교육공간을 마련하고 아이들을 위한 예절교육, 밥상교육, 인문학 강좌, 음악교실, 독서토론, 명상교육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목언 스님은 개관 인사를 통해 “아이들에게 예절과 전통문화를 가르치는 공간을 지역주민들과 함께 만들고 운영하는 것이

큰 기쁨이다. 마을의 부모들이 자식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전해주는 공간으로 만들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개관식에는 선각종 총무원장 정암 스님을 비롯해 신도와 지역사회단체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신도(임희자 외 4명)들로 구성된 다도례(茶道禮)를 시작으로 춤(김옥현), 시낭송(이미래), 국악(임희장, 임지화), 플룻(문은정) 연주 등 작은음악회가 개최됐다.

협동조합 피움은 무등산 군왕봉 및 참판골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고자 두암동 주민과 사찰이 지난 4월 자발적으로 만든 자생단체다. 지난 2011년 11월 사찰과 주민들의 모임인 '두암골 사람들'을 기초로 활동을 시작해 음악회, 인문학 강좌, 다도시연회, 기금마련 일일차집 등을 진행해 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노보살들의 일요 찬불가 배우기



실버음성공양단이 오카리나 등을 들고 불법 홍포를 다짐하고있다. 앞줄 왼쪽에서 3번째가 지도교사 일주향 보살.

전북불교회관 실버음성공양단

연세가 지긋하신 노보살님들이 음성공양단을 조직하고 매주 일요법회마다 음성공양에 나서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들은 전북불교회관 실버음성공양단(단장 윤정숙, 지도교사 유일주향)으로 모두 65세 이상의 여성보살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이 찬불가를 배우기 시작한 것은 3년 전으로 전북불교회관의 무료경로식당과 법당 봉사활동을 하면서 친분을 유지하고 있던 불자들이 모여 찬불가를 배우기 시작했다.

더구나 전북불교회관의 일요법회에는 특별한 찬불가를 배우는 시간이 마련되어 자연스럽게 찬불가를 배우며 부르는 모임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됐다.

경전의 가르침과 불보살을 찬양하는 찬불가 가사와 음률에 맞추어 노래하다 보면 어느새 환희심으로 가득차오르는 것을 느낀다고 입을 모은다. 늦은 나이지만 악기도 다룰 줄 알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 지도교사인 일주향 보살로부터 직접 오카리나를 배워 연주하면서 찬불가를 배우고 있다.

그동안 실력도 일취월장해 이제는 전북불교회관 뿐만 아니라 다른 사찰에서도 찬불가를 불러달라고 초청해 오는 것도 그리 드문 일이 아니다.

당시 원감이던 일원 스님이 '실버음성

공양단'이라는 멋진 이름도 지어주었다.

군법당의 법회나 전북대학교병원불자들의 법회에서도 찬불가를 불러주고 있어 이제는 제법 공연도 여색하지 않을 정도가 됐다. 매달 관음제일에는 금산사 법회에 동참해 '관세음의 노래'를 불러 불자들에게 음성공양을 하고 있다.

올해 70세인 최덕순 씨는 “이웃종교에 나가는 친구들이 실버합창단으로 활동하는 것을 보고 많이 부러워하곤 했다”며 “함께 모여 연주하고 노래하는 것이 마냥 즐겁기만 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매주 목요일과 일요일 법회 후 2시간정도 연습을 하는데 오히려 시간이 부족해 아쉽다고 한다. 한국 한국 배우나가는 재미도 있지만 가사에 녹아있는 가르침을 새기며 노래하다보면 오히려 신심을 다지는 계기가 된다고 입을 모은다.

최연장자인 김옥순 씨(73세)는 “찬불가를 좋아하는 분들만 모여 신심이 흔들릴 겨를이 없다”며 “단원들간의 유대감도 좋고 찬불가를 부른다 보면 나이를 잊어버리고 자신감이 생긴다”고 말했다.

전북불교회관 원감 보통 스님은 “노보살님들이 자발적으로 환희심에서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보기 좋다”며 “젊은 불자들이도 어르신들처럼 자발적인 신행생활을 했으면 좋겠다”고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생명존중포럼 및 생명사랑 콘서트

2013년 세계자살예방의 날인 9월 10일 '종교계와 함께하는 생명존중 포럼 및 생명사랑 콘서트'가 전북도청 공영장에서 개최됐다.

전북도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가 주최한 이날 행사는 전북의 4대 종교 대표들이 생명존중을 위한 종교계의 역할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생명존중 포럼'이 개최됐다.

포럼에서는 장수 팔성사 주지 법륜 스님이 '불교의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사업'을 주제로 발표하고, 원불교 김선명 교무(덕진교당) 천주교 이금재 신부(전주교구), 기독교 이형렬 목사(전북기독교연합

회)가 각각 토론자로 나서 생명존중 실천사화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생명존중을 위한 종교계의 역할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어 가수 유리상자를 초대해 감미로운 음악을 통해 생명존중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생명사랑 콘서트'도 진행됐다.

세계 자살예방의 날(World Suicide Prevention Day)은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자살예방협회(IASP)에 의해 2003년부터 제정, 시행되고 있는, 전 세계에 생명의 소중함과 자살문제에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날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금강경요해 金剛經了解

반야, 깨달음의 지혜로 밝힌 금강반야바라밀경 요해

금강반야, 깨달음의 지혜와 경계가 이 책 안에 있다.

- ♣ 아녹다라삼막삼보리 깨달음을 향한 소중한 지침서
- ♣ 깨달음의 경계와 자기 점검
- ♣ 반야지혜로 밝힌 금강경의 지혜세계
- ♣ 아녹다라삼막삼보리는 수행 성취의 지혜가 아니다.
- ♣ 무엇이 깨달음이며, 깨달음은 과연 어떤 것인가?
- ♣ 깨달음의 지혜 여래의 뜻을 밝힌 금강반야바라밀경의 실제
- ♣ 일각요의(一覺了義)로 꿰뚫은 금강경요해
- ♣ 금강 실상과 부사의 공덕세계를 드러낸 지혜의 가르침
- ♣ 불지혜 최고최상의 깨달음, 아녹다라삼막삼보리 깨달음 경계는 어떠한가?
- ♣ 무위실상 일성원융 본심과 본각과 본성의 세계

이해하기 어려운 무위실상 불법과 아녹다라삼막삼보리 깨달음의 실체와 본심, 본성, 본각의 일성원융 법계를 금강경요해 강의의 인연으로 누구나 깊은 불법대해를 이해하고, 아녹다라삼막삼보리 깨달음에 들도록 금강반야바라밀 지혜와 깨달음의 세계에 대한 수행 경계와 자증의 세계를 정성으로 세심히 살피어 깨달음과 불지혜를 향한 누구에게나 소중한 지혜의 가르침, 금강경요해 인연 공덕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무상각 불지혜 청정한 믿음과 불법 실상과 청정본심을 깨달아 아녹다라삼막삼보리를 누구나 빠짐없이 성취하시기를 바라옵고, 자성불을 원만히 성취하시길 진심으로 염원하며 발원합니다.

- 대구시 불국정토 세운스님 -

**화제의
신간**



신국판 / 456쪽 / 정가 25,000원

전국 서점, 인터넷 판매중!

지금 바로 펼쳐 보십시오!

한글 법화경

一大事 因緣

이 세상(三界)이 편환함이 없는 것은 마치 불난짐과 같으며, 많은 괴로움이 가득차서 가히 힘이 겹나고 두려우니라... 그 가운데 중생은 모두 바로 나의 아들이거늘... 오직 나 한 사람만이 능히 구원하고 보호 하느니라!

한글 법화경은 구마라집 한역 묘법연화경을 한글로 풀이한 경전이다. 법화경은 불성(佛性)인 참 생명의 영원실상을 명쾌하게 들어내어 인간의 상상을 뛰어 넘는 경전으로 대우주를 지배하는 최고의 힘 그 자체라 하겠다. 능히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괴로움과 번뇌를 여의케한다. 우주와 같은 마음을 직시하고 법화경을 되풀이하여 읽고 쓰면 더욱 참 맛이 우러나오는데 영원한 생명의 노래가 된다. 매일 읽고 쓰게된 공덕은 불가사한 현상의 기적으로 실제 일어나 신비의 체험은 다반사(茶飯事)며 삼세제를 부처님의 축복을 직접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법화경은 실천적인 생활불교의 이정표이며 신앙적이라 영험실화라 가장 많음을 알게 될 것이다.

중생이 본래 부처다.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라. 큰 법을 온세상에 널리 펴라. 법화 행자여 마음이 곧 부처입니다.

송월스님 옮김 / 신국변형판 / 584쪽 / 정가 20,000원